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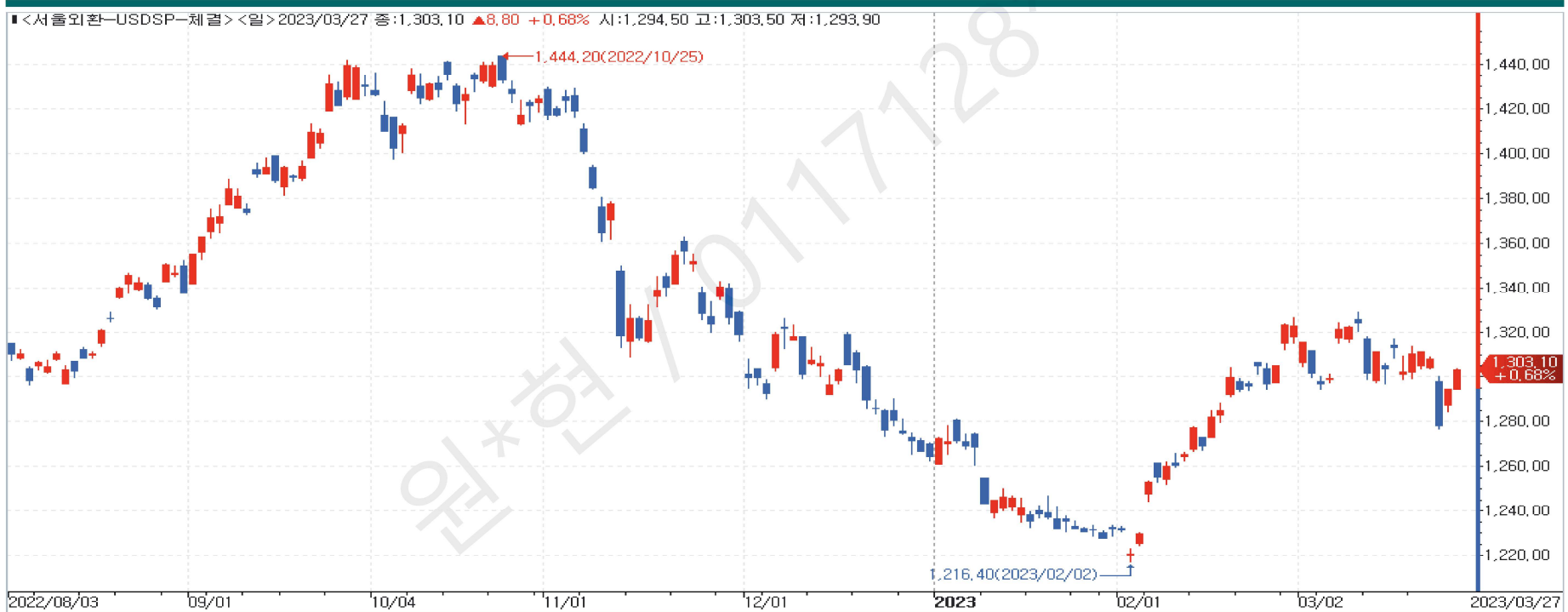
2023. 3. 27

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3/20~3/24)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CS 에 대한 USB의 인수 소식 속에 주요국에 대한 연준의 스와프라인 체결 등으로 글로벌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 불식 등 위험선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위안화 약세 견인 측면 반영하며 큰 폭 상승 출발. 이어, 대내적 수출 부진 심화 소식 등이 국내 경제의 신인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소폭 상승 전환. 중반, 미 재무부의 은행 유동성 위험에 대한 추가 보증 가능성 시사 등으로 위험회피 완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중-러 밀착에 따른 미-중 관계 악화 우려에 의한 위안화 약세에 동조되며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연준 25bp 금리인상 단행 이후, 시장은 예상에 부합했다는 인식으로 위험선호 반응으로 큰 폭 하락 후, 주 후반, 독일 도이체뱅크 신용위험이 불거지면서 위험회피심리에 따른 달러 강세 전환 속에 소폭 상승 전환하며 마감

달러/원 전망

- 최근 금융부문 신용위험이 도이체 방크로 전이된 영향이 정책 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시스템위기로 전이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단기적으로 위험회피 심리를 가중시키면서 원화 약세 기조 우위가 예상
- 여기에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 유입 등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 반면, 분기말 도래 속에 높아진 환율 상단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등이 환율 상단을 제어하며 1,300원 전후 흐름 나타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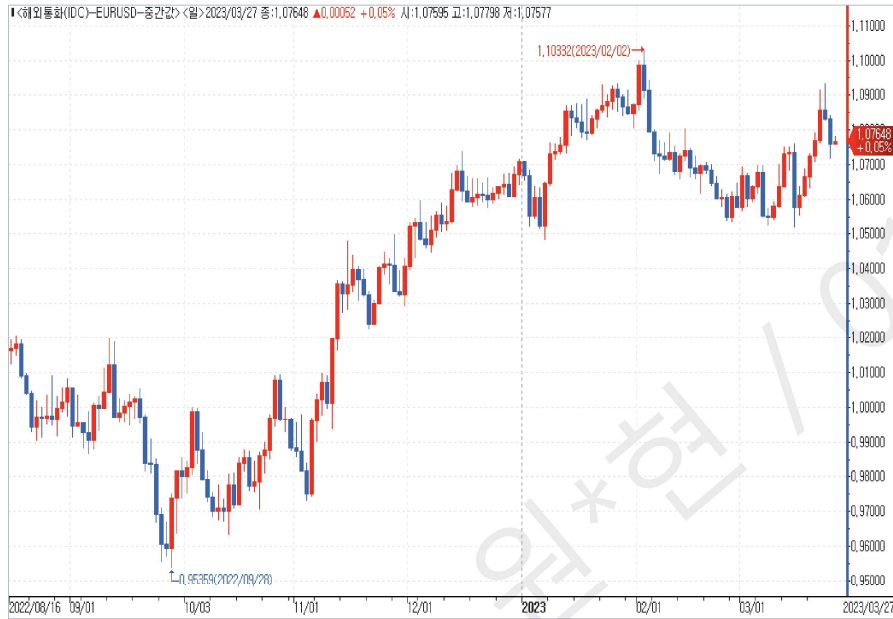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02.0	1313.5	1276.5	1294.3	-7.9

예상거래범위

1,290원 ~ 1,310원



엔·유로화 동향 (3/20~3/24)



유로화 동향

- 주초, USB의 CS 전격 인수 소식에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ECB도 필요시 유로존 은행들에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측면이 유로화 강세 출발에 영향. 이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소 누그러짐에 따른 미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 기조 및 미 연준과의 유럽 주요 중앙은행의 스와프라인 체결 등으로 강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3월 FOMC 25bp 금리인상과 은행권 유동성 위기 진정 기미 속에 ECB 총재의 인플레이션 대응 언급 등으로 유로 강세 이어진 양상
- 후반 들어, 주요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대응 금리인상 행보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진 가운데 유로 강세 흐름 지속하다 최근 급등세 지속에 따른 차익 매물 등으로 약세 전환 후, 주 후반, 은행권 신용위험이 도이체뱅크로 전이되며 달러 강세 견인에 따라 유로 약세 흐름으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665	1.093	1.0630	1.0759	+0.0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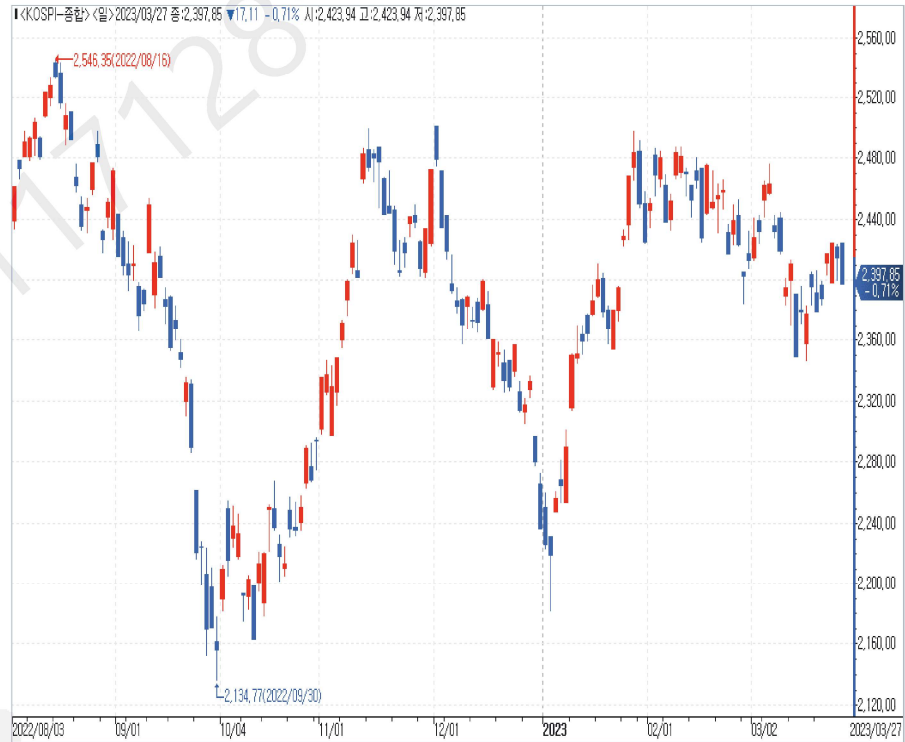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유럽 CS 관련 금융 불안의 진정 기미 속에 제한적인 엔화 매수세 영향 등으로 강세 출발. 이어 상기 요인에 따른 안전 선호 현상 완화 국면에도 달러가치가 FOMC를 앞두고 다소 혼조세로 돌아선 가운데 25bp 인상 가능성 유력 등으로 미 국채금리 상승을 반영하며 엔화는 소폭 약세로 전환
- 중반 들어, 시장 예상에 부합한 3월 FOMC의 25bp 금리인상과 미 국채 수익률이 추가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하며 장기구간 하락에 따라 이 영향을 반영하며 엔화는 강세 금전환 양상 시현
- 후반 들어, 주요국 중앙 은행들의 물가 대응 금리인상 기조 속에 미 재무부 장관의 은행 시스템 추가 조치 대응 시사 속 미 국채금리 하락 영향 반영하며 강세 흐름 지속 후, 주 후반, 도이체뱅크 신용위험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영향 반영되며 강세 이어지다 약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1.8	133.0	129.6	130.7	-1.1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3/20~3/24)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초, CS의 신증자본증권을 보유한 아시아권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한 점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국고채 금리 급락 출발. 이어 글로벌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국면 속에 3월 FOMC에 대한 경계감 상승 속에 국고채 금리는 중단기 구간 중심으로 소폭 상승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미 재무장관의 은행위기에 대한 추가 보증 공여 시사 등이 위험선호 회복에 영향을 미쳤으나, FOMC 경계감으로 국고채 포지션을 축소했던 기관들의 매수 확대가 반영되며 소폭 하락 국면 시현
- 후반 들어, FOMC 결과를 반영한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이어진 국면 후, 주 후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 지속에 따른 영향 반영 등으로 소폭 하락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UBS의 당국 지원 아래 CS 인수 소식 이후, CS의 조건부자본 증권 상각 소식이 재차 투자심리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 소폭 하락 출발. 이어 CS 사태가 유럽 금융부문 시스템 위기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코스피는 강제 전환 후 연준 금리인상 결정 관련 불확실성 부각으로 상승세 제한 받는 모습 시현
- 중반, 미, 유럽 은행권 연쇄 위기 우려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뉴욕증시 금융주 반등 등을 반영하며 상승세 이어지다 FOMC 경계감에 상승폭 다소 반납
- 후반 들어, FOMC 25bp 금리인상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인식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연재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란 연준의장 회견재용과 최근 은행권 신용위험에 대한 '포괄적 보험' 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앨런 재무장관 발언 등으로 코스피는 소폭 상승에 그친 후, 주 후반, 금융불안 지속 우려 속에 기관들의 대형주 중심 차익실현 등으로 소폭 하락 마감